

제주, 석유제품 가격 너무 높다!

정유기업 공급가격 2번째로 비싸 ... 공정위에 가격담합 신고

제주도 주유소들이 부당하게 높은 석유제품 가격을 내려달라며 정유기업을 상대로 몇달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주유소협회는 6월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인 석유제품 가격 인하 투쟁을 시작한 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주유소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정유기업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70원, 경유는 130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06년 제주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515.21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였으며 경기도와 대전보다도 비싼 편이다.

정유기업들은 제주도는 해상 운송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외상 거래 주유소가 많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주유소들의 입장이다.

강원도도 역시 여수에서 배로 실어 나르지만 제주도보다 가격이 싸고 제주 지역에 외상 거래 주유소가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제주지회장은 “외상없이 현금으로 거래해도 기준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폭이 리터당 고작 12원으로 다른 지역의 최고 50-7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주유소들은 2006년 제주도청과 함께 가격 인하 운동을 시작한 뒤 2007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남 의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기업 담합 신고를 하는 등 노력 끝에 2007년 초와 8월 2차례에 걸쳐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서 정유기업들의 공급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70원 비싼 수준으로 내려갔고 8월 이후에는 주유소 판매가격 전국 2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7월에는 2위였지만 8월에는 16개 시·도 중 11위로 내려갔고 9월에는 심지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지역이 되기도 했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 기자회견 이후에는 회원의 절반에 달하는 직영 주유소들과 정유기업 사이에서 얽힌 일부 자영 주유소들이 회비 납부를 중단해 돈 줄이 막혔으며 정유기업들이 외상 기일을 줄여버리기도 했다.

주유소협회 제주지회장은 “정유기업 관계자와 언쟁하다 폭행을 당해 입원하고 고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당분간은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본 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008년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을 펼치는 등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12>